

친환경·혁신… 완도, 해양바이오산업 경쟁력 인정

공동 협력연구소 입주기업들, 공모 선정 등 성과
신우철 군수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 등 지원”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입주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협력연구소 입주 기업인 슬로우 그라운드(대표 박창숙)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5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상품 공모전'에 'K-전통의 맛'이라는 디퓨저를 출품해 장관상(1위)을 수상했다.

'K-전통의 맛' 디퓨저 제품은 전복 패각을 소재로 입사이클링한 제품으로, 전통문화와 디자인을 더해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전문가 평가로 진행된 2차 심사(70%)와 대국민 투표(30%) 결과를 합산해 최종 1위에 선정됐다.

박창숙 대표는 “연구소 입주와 관계 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전복 패각을 새로운 소재로 구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업사이



슬로우 그라운드가 출품한 디퓨저.



펫프레시가 개발한 반려 동물 간식.

클링 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기업인 펫프레시(대표 오

찬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최대 7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사업화 지원을 확보하

는 성과를 거뒀다.

펫프레시는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의 가능성 펫 푸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차세대 가수분해 기술 고도화, 폴드폴라즈마 기반 연구, 원물 기반 기능성 사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찬미 대표는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 기반 시설이 기술 검증과 제품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프리미엄 펫 푸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성과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입주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 창업 공간으로 입주 기업에게는 연구소 내 연구 장비 등 사용자 할인 혜택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소 입주를 상시 모집 중이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 기초연금관리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체계적 수급 관리 등 성과

목포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수급률과 신청률, 부정수급 환수율, 기초연금 급여 예산 집행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심사했다. 그 결과 목포시는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 활동과 함께 기초연

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4만6184명이며, 이 중 75.86%에 해당하는 3만4806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온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초연금 운영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영암군은 최근 대불산단에서 국내 최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증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하이드로제니스’를 진수했다.

“친환경 선박 산업 ‘영암 새 성장동력’ 육성”

군,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선박 진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증 획득…“수소경제 선도”

영암군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도입했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대불산단에서 국내 최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증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하이드로제니스’를 진수했다.

친환경 선박 제조업체 ㈜빈센 본사에서 조선·해양산업, 전남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진

수식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지역인 영암군이 친환경 미래 선박산업을 선도하는 신호탄이다.

진수된 하이드로제니스는 영암군과 전남의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개발·실증사업’의 성과로, 해상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이다. 길이 17.4m, 총톤수 32t 규모의 알루미늄 선체, 100kW급 수소연료전지 2기와

92kWh급 리튬이온배터리 4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탑재해 무탄소·저소음·고효율 운항이 가능하다. 특히 해양 관광·레저 분야 친환경 선박 전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기반을 다져왔고, 이번 수소연료전지 선박 진수를 계기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선박 실증과 기술 축적으로 관련 기업 유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무안, 농식품 바우처사업 접수
취약계층 4인 가구 월 10만원

무안군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임신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지원된다.

특히 2026년도부터는 199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돼 먹거리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임산물 등으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는 12월 22일 기준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며,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ucher.go.kr), ARS(1551-085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가구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